

보도자료

Super-jin의「소통광장」

국회의원 **진 성 호**  
(한나라당 중랑을)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3 호
- 전화 | 02-784-3865    ● 팩스 | 02-788-3823
- 홈페이지 | <http://www.superjin.com>    ● E-mail | [superjin@na.go.kr](mailto:superjin@na.go.kr)



## 불법콘텐츠 유통시켜 돈버는 10대 청소년 헤비업로더 급증!

전년대비 5배 증가... 62.9%는 무직 또는 학생!

처벌은 솜방망이... 강력한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의지 필요!

불법콘텐츠를 유통시켜 문화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된 10대 청소년 헤비업로더가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헤비업로더?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의 음란 영상물을 허가 없이 웹하드나 P2P에 올려 수입을 올리는 네티즌을 말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층의 헤비업로더 적발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10대 청소년 헤비업로더 적발건수는 2009년 7명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36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 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헤비업로더 단속현황 (단위:명)

연령별 사 례 별	2009년	2010.8.31.	합계
<b>20세 미만</b>	<b>7</b>	<b>36</b>	<b>43</b>
20~29세	70	29	99
30~39세	81	22	103
40~49세	28	7	35
50~59세	8	-	8
60세 이상	1	1	2
기 타*	5	24	29
합 계	200	119	31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성명 불상'으로 송치한 경우

이들의 직업군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전체 319명 중 105명(32.9%)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이 64명(30.0%), 회사원 42명(13.2%) 순으로 나타나, 무직자와 학생이 불법콘텐츠 유통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 2)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헤비업로더 적발자 직업군 현황

구분	무 직	학 생	회사원	자영업	일용직	기타	합계
2009년	<b>76</b>	<b>32</b>	28	24	6	34	200
2010년	<b>29</b>	<b>32</b>	14	7	1	36	119
합계	<b>105</b>	<b>64</b>	42	31	7	70	319
비율	<b>32.9%</b>	<b>30.0%</b>	13.2%	9.7%	2.19%	21.9%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하지만 이들 적발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비업로더 개인별 처분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180명 중 실제 징역형을 처분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91%에 해당하는 적발자가 구약식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중 106명이 5백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2010년에도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53명 중 28명이 구약식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이 중 17명이 5백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 3) 2009년 헤비업로더 적발자 개인별 처분 현황

처분결과	인원수(명)	벌금처분 결과	인원수(명)
공소권없음	5	100만원 미만	31
기소유예	19	100-200만원 미만	42
구약식	130	200-300만원 미만	14
구공판	14	300-500만원 미만	19
불구속기소	1	500-1,000만원	10
기타	11	기타	64
합계	180	합계	18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청 통보가 누락된 사항임.

(표 4) 2010년 8월 31일 현재 헤비업로더 적발자 개인별 처분 현황

처분결과	인원수(명)	벌금처분 결과	인원수(명)
공소권없음	-	100만원 미만	11
기소유예	6	100-200만원 미만	3
구약식	19	200-300만원 미만	1
구공판	3	300-500만원 미만	2
불구속기소	-	500-1,000만원	1
기타	25	기타	35
합계	53	합계	5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청 통보가 누락된 사항임.

한편, 헤비업로더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P2P를 포함한 웹하드 사이트는 현재 약 3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전체 불법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은 “무직자와 학생의 비율이 62%에 달한다는 것은 헤비업로더들이 불법콘텐츠 유통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 이라면서, “음악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소셜 등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헤비업로더들로 인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

고 지적하고, “공정사회 정착이라는 시대 요청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남의  
창작품을 도둑질해서 불법적으로 수입을 가로채는 헤비업로더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